

# 숲으로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만든다

## 산림관계관 협력 회의... 산림복지분야 총 2618억원 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산림복지분야 설명회'를 열어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산림부서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진안교육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업무를 공유하고 그동안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 활용방안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와 가꾸기,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확대 등 '도민의 행복'을 위해 숲으로 잘 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협력

을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산림복지분야 예산규모는 총 2,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0.64% 증가했으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산림의 경제·공익·사회적 가치 증진,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산림복지 활성화 910억원, 산림자원 관리 681억원, 산림재해 대응 631억원, 임업경쟁력 강화 144억원, 산림분야 일자리 증진 등 기타분야 252억원 등이다.

숲의 혜택을 누리는 데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분야(치유의숲

등 4종 143억원),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분야(숲길 등 3종 109억원), 중·장년기 산림휴양분야(자연휴양림 등 2종 181억원), 노년기 및 소외계층 산림복지분야(녹색자금 지원사업 등 2종 50억원) 등 분야별·주기별로 산림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흡수,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숲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도내 곳곳에 도시숲(기후대응 도시숲 15.9ha, 도시바람길 숲 1개소 등)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숲 조성(자연안심 그린숲 4개소),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53.8km) 등 사업 추진으로 탄소흡수원 확충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산림의 경제·공익·사회적 가치 증

진을 위해 지역에 맞는 기능별 나무심기(1,640ha)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맞춤형 숲가꾸기(1만 2,047ha)사업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 산불벨기(3대) 운영, 산불진화 차량, 산불 대응센터 설치,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등 총 277억원을 투입해 진화장비를 확충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우기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1,100개소)를 조기 추진하여 산사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지를 우기전 신속히 복구완료(9개 지역)해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산림보호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도시녹지관리인 등 산림서비스분야에 289억원을 투자해 1,6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추진한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숲을 건강하게 가꾸고 보호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생활권 산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숲 조성, 정원문화 확산 등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불·소나무재선충병·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임업인이 안정적인 산림소득 창출 및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산림복지분야 설명회'를 개최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 3470억원 들여 7만9000여개 노인 일자리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노인일자리사업에 3,470억원을 투입해 전년(6만9,000여개) 대비 1만여 개가 늘어난(14.4%) 역대 최대수준인 7만9,000여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공익활동 5만9,554개, 사회서비스형 1만4,054개, 시장형 3,668개, 취업알선형 1,565개 등 총 7만2,841개의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작년(8,402개) 대비 70.1%(5,792개)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은 국민생활시설 점검,

소방시설 안전 점검, 취약계층 가스안전관리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노인들의 경력·역량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노인일자리 사업중 활동비도 6년 만에 인상한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기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기준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의 소양교육 및 활동(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2월 초부터 도내 100개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로 독거노인, 취약노인가정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 교육시설 지원, 공공행정업무 등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사업현장에 배치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 저소득 어르신과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 노후 소득보장이나 지속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우울감 해소와 사회적비용 절감, 지역사회 공익증진 등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본부,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시군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수행기관 실무자교육, 노인안전, 컨설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전북자치도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품격있는 건강한 노후의 삶과 노년기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보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입실군 공고 제2024-108호

### 입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입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이에 대한 관공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분들께 알립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입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나. 위 치: 입실군 입실읍 이도리 100번지 일원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초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초서

구분	도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원	1	이도리 중동수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실군 입실읍 이도리 100번지 일원	-	증959,743	59,74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유
전원	-	입실군 입실읍 이도리 100번지 일원	59,743 (증 959,743)	중동수택(아파트) 건설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미용의 효율성을 높여 일주요시 중심의 친환경 주택 공급을 위한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4. 2. 2. ~ 2024. 2. 16(14일간)  
나. 열람장소: 입실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  
다. 열람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3. 군관리계획 결정도서: 계획영략(열람장소 비치)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및 방법: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 기재 후 서면 제출  
○ 제출장소: 입실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전라북도 입실군 입실읍 수정로 30)  
5.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실군 건설과 도시계획팀 ☎063-640-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일 입 실 군 수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시행

### 전북자치도, 총 1350억원 1년간 이차보전 2%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 6개 금융기관(전북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2021년부터 총 1만 993건, 3,14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2023년 3,996건, 1,305억원)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사업은 1,350억원 규모로, 3개 부문으로 운용(보듬지원, IP 기업지원, ESG(녹색) 기업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및 미래선도형 신사업 영위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보듬지원은 1,000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선투자건 설 보증지원으로 이원화 운영하며, 각각 최대 2천만원, 2억원 이내 한도로 보증 지원한다.

기술집약적 혁신기업(IP기업) 지원은 50억 규모 최대 1억원 이내, 이에스지(ESG) 기업지원은 300억 규모로 녹색기업 최대 7,000만원, 저탄소 공정 전환 대상 기업 최대 2억원 이내로 보증한도를 운용한다.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으로 2%를 도에서 1년간 지원하며, 이는 세 가지 지원 트랙 모두 적용된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위기 장기화 대응을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2023년도 지원사업의 문제점 개선 및 환류를 통해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맞춰 3개 부문으로 세분화 운영하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보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마을세무사 첫 시범 운영

### 김현기 마을세무사 참여...국세 신고 및 절세 방법 주 이력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생활속 세금 고민을 풀기 위해 도청 1층 희망법률 상담실에서 마을세무사 상설 상담소를 시행 첫날인 1일 운영했다.

이날 첫 김현기 마을세무사(김현기 세무회계사무소)가 참여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국세 관련 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2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신고 및 절세 방법에 관한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편안한 상담분위기 속에서 평소 궁금했던 세금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료 상담을 받은 한 도민은 "평생 일군 돈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마을세무사 분이 친절하게 증여에 대한 개념과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세금 신고가 더욱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 상설 상담소 운영은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2322)로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시·군에서도 76명의 마을세무사들이 전화·방문 등 상시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마을세무사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 지름길